

조계종 시무식이 끝난 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종무원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주먹을 불끈 쥔 채 새해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주요종단 '화합' 기치로 종무시작

조계 · 태고 · 진각종, 기해년 불교발전 다짐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 각 주요종단이 새해를 맞아 화합을 기치로 내걸고 기해년 불교발전을 다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불기 2563(2019)년 기해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모두 일상 속에서 바르게 자비를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 복과 덕을 나누자. 인연과 본분을 소중히 여겨 부단히 정진하자"면서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어가는 데 함께하자. 종단발전을 이끄는 주역으로, 참된 불자로 살아가겠다는 서원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도 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서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 각 교구 종무원장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시무식 및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편백운 스님은 "지난해 종단운영에 있어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결국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태고종은 도전적 모험정신으로 한 해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2일 진각문화전승원서 시무식을 봉행, 3년차에 접어든 20대 집행부가 종단사업과제를 원만히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올해에도 심인당 이전과 신축, 진각교전과 진각의범 정비 등 다양하고 중요한 사업이 있는 만큼 종무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전체 예산 감소 속 신규사업 '눈길'

2019 문체부 종무실 불교예산 살펴보니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이 지난해 대비 30% 감소한 565억9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각 종교문화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불교계는 '언해불전 역해'라는 신규 국고지원 사업을 필두로 한 해 불교문화 확산에 나선다. 종교문화 예산을 총괄하는 문체부 2019년 예산을 중심으로 불교계 사업을 살펴봤다.

올해 가장 주목할 국고지원 사업은 바로 '언해불전 역해'다. 신규사업으로 국고예산이 2억 원 배정된 언해불전 역해는 (사)운허기념사업회가 추진한다. 언해불전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15~16세기 불교경전을 우리말로 옮겨 보급한 책을 뜻한다. 세종 당시 편찬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등이 대표적이며, 뒤이어 〈법화경〉〈원각경〉〈아미타경〉〈금강경〉 등 수많은 경전 언해가 이뤄졌다.

운허기념사업회의 언해불전 역해는 그간 오랫동안 국고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예산 배정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한글고전 역주사업 일환으로 대부분의 불경언해서를 현대어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허기념사업회는 이 책들이 언해서의 원문을 담지 않고, 불교교리 전문가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짚어 별도의 언해불전 역해라는 사업을 추진했다.

운허기념사업회 이사 선우 스님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한글고전 역주는 가장 중요한 원문이 빠졌다. 특히 불경언해서 역주는 불교에 대한 해박한

'언해불전 역해' 예산 배정
운허기념사업회 추진 계획
태고문화센터 건립 가시화
법난기념관 예산 대폭 삭감

지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국문학자들이 참여해 부족한 점이 많다"며 "올해 언해불전 역해 사업을 통해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전산화 작업 등을 준비하려 한다. 이 같은 사업은 남북통일언어에 대한 조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기대할 만한 것으로는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을 꼽을 수 있다.

종무실 예산 565억9100만원
(지난해 대비 30% 감소)

주요 불교예산 항목

전통사찰 보존	208억8400만원
불교문화행사 지원	36억3500만원
지역문화행사 지원	13억7000만원
10.27법난기념관	50억 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11억6000만원
제주태고문화센터	8억 원
불교기록 아카이브	20억 원
가산불교 대사림	7억 원
언해불전 역해	2억 원

지난해 태고종 제주교구가 추진하기 시작한 이 사업은 부지변경을 통해 부지매입이 끝났으며, 공사를 앞둔 상황이다. 제주태고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공연장과 전시실, 체험관 등을 갖춘 대중 문화공간을 지향한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매입한 봉개동 토지 인근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큰 것으로 알려져 주민 설득이 주요과제로 남았다. 태고종 제주교구에 따르면 현재 마을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을 우려하며 도에 민원을 제기 중이다.

제주교구 관계자는 "봉개동 인근 마을 분위기가 혐오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등 어떠한 시설도 들어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1100평의 부지를 매입했지만 공사 소음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마을진입로와 떨어진 사도(私道)를 매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역점사업으로 평가되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예산은 지난해 약 252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는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용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현실적인 예산부터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예산은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1억6000만원으로 42% 감소했지만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예산이 배분돼 총 예산에는 변동 없다고 종무실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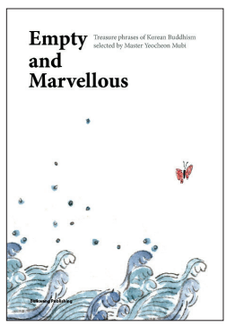
이외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의 해외교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가산불교 대사림 편찬, 불교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 등 기존 사업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종단협 10번째 불교서적 영역출판

〈Empty and Marvellous〉
포교용으로 2000부 제작해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불교서적을 번역해온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10번째 결과물 〈Empty and Marvellous · 사진〉를 내놓았다. 이 책은 한국불교 대강백으로 평가받는 무비 스님이 쓴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을 편집한 것으로 한국불교만의 명구를 작은 책자 한 권에 담아냈다.

이 책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명구와 국내 조사 스님들의 명언, 선시 등에서 42개를 다시 추려 하나로 묶었다. 무비 스님 단행본 내 명구의 원전이 중국 등 넓은 지역을 포괄했다면, 이 책은 한국이라는 무대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역뿐만 아니라 한글 단행본에 실린 원문도 함께 담아냈다. 이



와 함께 외국인들을 위해 따뜻한 느낌을 주는 한국적 일러스트를 다수 삽입,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이야기에 거부감 없도록 꾸몄다. 번역은 불교계서 오랫동안 번역과 통역을 맡은 홍희연 씨가 맡았다.

종단협은 이 책을 포교용으로 총 2000부 제작했으며, 회원종단과 템플스테이 사찰, 주한대사관, 해외한국대사관, 해외한국문화원, 도서관 등 30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제19대 총장 선거 본격화

총추위원 26명 위촉… 1차 회의서 일정 · 세칙 의결

동국대 제19대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1월 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총추위원 위촉과 향후 일정 · 세칙 등을 의결했다.

총추위원은 규정에 따라 총 26명이 위촉됐다. 조계종 대표로는 원명(봉은사 주지) · 삼혜(前종립학교관리위원장) · 호산(중앙종회 사무처장) · 원명(종회의원) 스님이, 사회인사 대표로는 이기흥(조계종 중앙신도회장) · 박범훈(조계종 불교음악원장) · 김봉석(법률사무소 금상 대표)이 이름을 올렸다.

동문 대표로는 전영화(총동창회장) · 박대신(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교원 대표로는 불교대학 대표 정도 스님을 비롯해 양홍석 · 공영대 · 최봉석 · 이재철 · 박찬규 · 윤화영 · 박형무 · 강택구 · 정달영 · 안희철 · 이윤석 교수가 참여한다.

직원 대표에는 김영훈 · 조영신 · 정왕근 · 장인준이, 학부생 대표로는 김정도 前총학생회장이 위촉됐다. 대학원생 대표는 자격 논란 등 법적 미비 사항이 발견돼 선정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총추위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위촉됐다.

위촉 직후 원명 스님은 "동국대는 전국 각지 사찰이 재원을 기부해 세워진 종립학교지만 처음 원력보다는 많이 가벼워졌다"면서 "내홍없이 공정하게 동국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중립적이며 원칙

1월 15~16일 지원서 접수
18일 후보 자격심사 진행
22 · 28일 소견발표 · 토론회
2월 7~8일 이사회서 선출

대로 총장 후보 선발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사장 자광 스님도 공정한 총장 후보 선출을 당부했다. 스님은 "그간 총장 선출을 두고 과열 분위기가 있어 최대한 시기를 늦췄다. 이제는 안정된 분위기에서 좋은 인물을 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학교 측은 어떤 선입견도 없다. 가장 민주적이면서 객관성을 확보해 학교를 발전시킬 인물을 총장으로 사심 없이 선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추위는 1차 회의에서 총장 선출 일정, 운영 세칙, 실무위 구성 등을 확정 · 의결했다. 15~16일 지원서 접수에 이어 18일 2차 회의에서는 지원자 자격심사와 최종 후보자수를 의결한다. 22일 3차 회의에서는 후보 대상자 소견발표가, 28일에는 공개토론회가 진행된다. 소견발표와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종추위는 1월 30일 4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2월 7~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들 중 총장을 선출한다.

이와 함께 총추위는 실무를 책임질 실무위를 구성했다. 실무위원으로는 호산 스님을 비롯해 김봉석 변호사, 박대신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최봉석 · 정달영 교수, 정왕근 노조위원장, 김정도 前총학생회장 등 7명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 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 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011-870-0021